



2020 초등교원대상 그림책 이해를 위한 그림책 연수

<그림책 읽어주기 어떻게 할까?>

■ 기 간 : 2020. 7. 6.(월) ~ 7. 7.(화) 15:00~17:30
2020. 7.13.(월) ~ 7.14.(화) 15:00~17:30

■ 장 소 : 전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 강 사 : 이 원 경 (어린이도서연구회)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JEOLLABUKDO JEONJU OFFICE OF EDUCATION
54936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http://www.jbje.kr>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JEOLLABUKDO JEONJU OFFICE OF EDUCATION
초 등 교 육 과

2020 초등교원대상 그림책 이해를 위한 그림책 연수

<그림책 읽어주기 어떻게 할까?>

- ▣ 기 간 : 2020. 7. 6.(월) ~ 7. 7.(화) 15:00~17:30
2020. 7.13.(월) ~ 7.14.(화) 15:00~17:30
- ▣ 장 소 : 전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 ▣ 강 사 : 이 원 경 (어린이도서연구회)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JEOLLABUKDO JEONJU OFFICE OF EDUCATION
초 등 교 육 과

책읽기의 즐거움, 그림책과 함께

이 원경 || 어린이도서연구회

I. 초등 책 읽기 평생 독서의 바탕

초등교육은 독서가 전부라는 생각이다. 미국 버클리 연구소에서 성공한 사람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공한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은 강한 집중력, 살아있는 감성, 창의적 사고, 정직한 성품, **풍부한 독서력**이라는 보고가 있다.

책읽기가 인간의 삶에 끼치는 영향 특히 초등학교 때 읽은 책의 양과 질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서로 습득한 간접 경험은 배경지식이 되어 다음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아이들이 책을 들고 읽을 수 있도록, 책에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독서교육의 출발이다.

책이 많은 가정이나 교실 분위기, 책과 관련된 칭찬 한 마디, 책을 읽고 토론할 때 친구로부터 들은 멋진 말 한마디, 동화책을 읽어주시던 선생님과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 동네 책방 주인의 친절함 미소, 처음 내 책을 갖게 되었을 때의 감격, 좋아하는 주인공이 생겼을 때의 기억……. 이런 것들이 책과의 친밀도를 높여준다.

책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 읽어주기이다. 하루에 15분씩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은 그 책에 흥미를 갖게 되고, 책을 읽어가는 동안 아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크게 발동한다. 언어 표현력과 사고력이 크게 늘어나며, 집중력이 생기고, 아이들의 정서가 풍부해지고 성격이 좋아진다. 또한 아이들에게 인생의 좋은 길잡이 구실을 하며 아이와 1대 1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된다. 교사와 부모는 책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깊이 탐구하여야 한다.

II. 그림책의 독자 - 어린이, 어른

그림책을 읽을 때 그림이 보여주는 시각적 서사는 언어적 서사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책에서 그림은 글만큼, 때로는 글보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그림의 표면을 보는 사람과 그림 이면의 세계를 보는 사람은 동일한 그림책을 보고 있다고 해도 각각 매우 다른 감상을 하는 셈이다. 언어적 서사에 얽매어 그림을 단지 글의 보조수단으로만 바라볼 때 그림들은 이야기의 배경 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각적 서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읽어낸다면 그림은 또 다른, 보다 중층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글이 그림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거나, 혹은 그림이 글이 말하지 않는 내용을 전달하는 그림책의 경우, 문자 텍스트에 치우쳐서 글만을 읽는다면 그림이 담는 중요한 의미들을 읽어낼 수 없다. 글을 먼저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이 보이지 않는데, 니콜라예바(Maria Nikolajeva)와 스캇(Carlo Scott)은 “삽화를 단지 장식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전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런 방법으로 그림책을 읽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한다.

그림을 먼저 읽는 어린이독자의 눈은 문자를 먼저 읽는 보통 어른독자들의 눈과 달리 매우 예민하다. 그림 속의 사소한 움직임과 변화, 예를 들어 주인공 주변을 날아다니는 나비 한 마리, 이리저리 방 안을 달려 다니는 작은 생쥐의 움직임을 어른보다 먼저 읽어낸다. 아이들이 그림을 읽는 방법은 거의 본능적인데 “글을 아직 배우지 않았거나 갓 배운 아이들이 언어 텍스트에 고착된 성인들보다 더 노련하게 그림 텍스트를 읽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킬레는 말한다.

언어적 서사에 집중하는 어른들이 문자의 세계, 상징의 세계에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겹의 결을 지닌 그림들을 자신들만의 언어로 해석해낸다.

그러나 그림과 문자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그림책에서는 문자가 없어도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자와 그림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채 일종의 중복, 혹은 반복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그림책의 그림이 만들어내는 틈새는 보이지 않는다. 그림이 만들어내는 **틈새란 문장이 말하지 않는 것, 혹은 문장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글과 그림은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전혀 반대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오로지 그림책의 그림을 들여다보는 독자만이 글과 그림의 간극에서 생기는 틈새를 알아볼 수 있다. 그림책이 매력적인 독서경험이 되는 이유는 이 틈새를 통해 그림이 문자화되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Ⅲ. 그림책의 공간

그림책은 골목과 대문과 마당이 있는 한 채의 작은 집과 같다.

평면 위에 펼쳐는 예술이지만 잘 지은 그림책에서는 견고한 실물의 입체적 느낌이 난다.

그림책의 이야기는 글과 그림이 함께 만든다. 그림을 가리고 글을 보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책은 글자 없이 그림만으로 이야기를 엮어가기기도 한다. 글자가 없는 그림책에서 인물들의 대화와 작가의 목소리는 그림 속에 숨겨져 있다. 마치 숲속에 비밀의 오솔길이, 기와지붕 안쪽에 촌촌한 뼈대가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글이 그림이 꾸려가는 이야기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책을 구성하는 종이의 질감과 두께, 낱장의 종이를 묶고 펼치는 방법, 필요한 부분을 자르고 반짝거림을 더하고 구멍을 내어서 만드는 출판 제작의 여러 가지 후가공 과정까지 마쳤을 때 비로소 그림책이라는 한 권의 집이 완성된다. 따라서 그림책은 ‘쓴다’, ‘그린다’고 하지 않고 ‘만든다’고 한다. 대부분의 책은 ‘읽는다’고 말하지만 그림책의 공간 안에는 단순한 읽기와 보기를 넘어서는, 종합적 예술 경험과 출판의 전문 노하우가 담겨 있다. 멋진 집에 처음으로 초대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는지 생각해보자. 그림책을 잘 읽는 방법은 이와 비슷하다.

1. 표지

그림책의 표지는 대문과 같다. 책등을 가운데 두고 앞표지와 뒤표지를 펼쳐보자.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큰 대문이 있는 집이다. 이수지의 『검은 새』의 경우 앞표지와 뒤표지를 잇는 압도적인 비행 장면이 등장한다. 펼쳐서 보지 않으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다.

앞표지와 뒤표지가 두 개의 장면으로 나뉘어 있다면 입구와 출구가 다른 두 개의 문이 있는 집으로 생각하면 된다. 표지는 대개 이야기의 전체적인 인상을 보여주는 편이지만 거기서부터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림책도 있다. 백희나의 『어제 저녁』은 표지에서부터 글이 등장한다. 이 그림책은 아코디언처럼 펼쳐서 읽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표지가 곧 본문 첫 장면이다. 표지를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는 것은 새 집을 방문할 때 주변 골목과 대문, 들어가는 입구를 잘 살펴 보면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2. 면지

책을 펼치면 처음 만나는 것은 면지이다. 면지는 딱딱한 표지와 부드러운 속지를 잇는, 단단하게 풀칠이 된 부분이다. 앞면지와 뒷면지가 있는데 단색의 간단한 면지도 있지만 요즘은 그림이 그려진 면지가 많다. 면지는 대문을 지나 건물로 들어가는 작은 뜰인 셈이다. 그림이 없다면 면지의 색이나 그림은 이 책이 앞으로 보여줄 이야기의 분위기나 단서를 상징한다.

안은영의 『가방엔 뭐가 있을까』에는 앞으로 책에 나올 저마다 다른 가방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다. 이자벨 미뇨스 마르틴스의 『아무도 지나가지 마』에는 작품 속에서 멋진 시위를 벌이게 될 군중들이 한 명 한 명 자신의 이름을 걸고 등장을 예고한다.

앞면지가 예고편이라면 뒷면지는 보너스 트랙과 비슷하다. 전미화의 그림책 『미영

이』의 뒷면지는 미영이가 엄마와 귀가 버스를 기다리는 장면인데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가장 궁금해 하는 강아지의 동행 여부도 여기서 알 수 있다. 뒷면지를 읽지 않고 책을 덮은 독자는 영영 그 궁금증을 풀지 못하게 된다. 김동성의 『엄마 마중』은 원작인 이태준 선생의 글에 없는 확장된 속편을 뒷면지에 담아놓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3. 속표지

그림책의 현관문은 속표지이다. 고전적으로 속표지는 판권 면을 왼쪽에 두고 배치되었으며 다시 한 번 책의 제목과 작가의 이름을 환기시키는 장치였다. 그러나 요즘은 **제목만 배치하고 넓은 여백을 둔 속표지를 한 장 더 배치**한 그림책도 많다. 현관에 중문을 두어 집에 들어가는 사람의 **공간적 느낌을 조절**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다. 제목은 책 전체를 하나로 상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본문을 읽기 전에 넉넉한 여백을 누리면서 제목의 의미에 잠시 집중해보는 것도 좋은 그림책 읽기 방법이다. 최대한 능동적으로, 더 많이 상상하면 할수록 그림책은 예기치 않은 즐거움과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줄 것이다.

4. 책등

요즘은 책등이나 책등의 반대편에 의미를 숨겨두기도 한다. 전주영의 『노란 달이 뜰 거야』의 책등을 보면 작은 나비가 그려져 있다. 이 나비는 글자가 적고 그림이 많은 이 그림책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구세 사나에의 『우리 비밀 기지로 놀러와』의 책등에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일찌감치 자신의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등장한다. 안녕달의 『수박 수영장』을 읽을 때는 반드시 책등의 반대편을 살펴봐야 한다. 수박처럼 붉은색으로 후가공을 한 먹음직스러운 모습이 나타난다.

5. 본문

펼쳐진 두 페이지를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며 책의 한 화면으로 본다. 화면 중앙에 제본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있는 ‘접지면’이라는 지면이 있다. 이 지면은 중앙의 접히는 선(접지선)에 의해 언제나 표현상의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화면 가득히 그리는 그림도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한가운데를 피해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림책의 그림이 화면의 절반인 한 페이지에만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6. 그림의 여백

그림책은 작가가 완벽하게 구성한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책이 아니다. 아

이들이 갖고 놀며 상상하고 교사,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재구성하는 책이다. **아이들에게 독서란 이야기 속에 뛰어드는 경험이다.** 그리고 아직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은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그림책 속으로 쉽게 뛰어 들 수 있다. 이것이 그림책에서 여백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림책의 공간을 이해하는 일은 그림책 읽기라는 신비스러운 여행의 출발이다. 표지와 면지, 속표지, 만들새의 비밀을 살펴보면서 작가가 지은 그림책이라는 집의 더 깊고 놀라운 지점까지 문을 두드려보기를 바란다.

IV. 문학교육 어떻게 할까?

학교 도서관이나 도서실의 장서에 ‘800문학’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은 문학을 읽으며 사물을 깨닫고 인생을 배우기 때문이다.

문학을 읽으며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문학은 철학과 종교와 과학과 역사와 어학들을 모두 아우르며 그것을 이론으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학으로 진리로 깨닫게 하는데 귀한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파브르의 『곤충기』는 과학이지만 어떤 문학책에 못지않게 문학다운 책이라 할 수 있고, 실제 이 책은 문학전집에 넣고 있다. 시이튼의 『동물기』도 그렇다.

이밖에 순수한 동화나 소설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런 작품을 읽으며 역사와 사회를 배우고 과학과 철학을 몸으로 익히는 것이다. 어린이 문학이 교육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넓고 크며 그것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학교육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가? 문학교육의 변화는 제도가 아닌 교실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다. 교사들의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초등학교의 교육이 교사의 자율적인 노력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문학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적 시도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활동은 ‘책읽어주기’ 활동이다. ‘책읽어주기’는 문학적 경험을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이며 나아가 가장 효과적인 활동이다. 더러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단계에 국한된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책읽어주기’는 학령 전부터 초등학교 전 기간에 걸쳐 유용한 활동이다.

이 활동은 읽어줄 책을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게 선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책을 선정한 다음 필요한 것은 책을 읽고 들을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책읽어주기’에 적합한 교실공간의 배치, 책을 읽기에 앞서 표지와 판권, 작가, 출판사 등 책의 형식에도 주의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책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교사는 ‘책이야기’를 자주 들려줄 필요가 있다. 읽은 책의 내용을 간략히 말하고, 느낌을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자율적인 읽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환경으로 학급문고를 잘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학교도서관을 활용하여 필요한 책들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그림책 읽어주는 교사

자신이 직접 그림책을 읽는 경우에는 말과 그림 사이에 틈이 생긴다. 시간차가 생기므로 그것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귀로 들으면 두 세계가 순식간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언어 속에 생생한 이야기의 세계가 보인다. 진정한 그림책의 세계가 보이는 거다, 그림책 속에 인쇄되어 있는 그림은 정지된 화면이지만, 어린이에게 보이는 그림책의 그림은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귀로 들은 말이 그림을 움직이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어린이는 그림책을 체험한다. 스스로 그림책의 이야기 세계를 만드는 체험, 이 체험을 했을 때 우리는 그림책의 본질에 가 닿을 수 있다.¹⁾

책 읽어주기 활동을 처음 하는 교사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어떤 책을 읽어줄 것인가’일 것이다. 평소에 어린이 책을 읽지 않는 어른이라면 막막하기까지 할 것이다. 가장 좋은 목록은 읽어주는 사람이 재미나게 읽고 감동받은 책이지만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시작은 신뢰할 만한 비영리단체의 목록을 참고하거나 꾸준히 책을 읽어주는 동료교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상을 고려하여 적합한 책을 골랐다면 **먼저 그 책을 여러 번 읽어 재미를 곱씹어 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야기가 시작되고 풀어지고 마무리되는 과정을 알고 읽어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교감 면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온전히 읽어보지 않은 책은 읽은 이의 느낌이 빠져 있어 알맹이 없는 껍데기(줄거리 전달)가 되기 십상이다. 당연히 물 흐르듯이 읽어줄 수 없고 읽어주는 이의 감흥을 듣는 이에게 전달하기도 어려워 책읽기의 즐거움을 나누는 일에서 멀어지게 된다. 때문

1) 『어린이와 그림책/ 마쓰이 다다시/ 샘터』

에 들려주는 이가 여유 있게 시간을 내어 성실하게 읽고 자신의 감흥을 듣는 이와 교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은 책 읽어주기 전 꼭 필요하다.

대상에 적합한 책을 골라 책과 교감했다면 다음은 읽어주기 차례다. 이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이다. 목소리 톤, 감정선, 손 모양에 이르기까지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 읽어주는 사람의 즐거움을 잘 전달하는데 집중하면 된다.

둘째, 평소 자신의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읽어주면 된다. 만약 읽어주는 중간에 끼어드는 아이가 있다면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간단하게 답을 하거나 읽기를 마치고 이야기 하자고 양해를 구한다음 이어서 읽으면 된다.

책과 무관한 엉뚱한 질문처럼 보여도, 어떤 식으로든지 책과 관계가 있거나 그 아이의 생활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편찬을 주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이 그 질문을 소중하게 여기고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격려한다.

책을 읽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책 읽어주는 무엇을 가르치려는 일이 아니고 내가 누린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너무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편안한 자세로 듣게 하는 것도 괜찮다. 잘 듣지 않는 아이의 경우, 읽어주는 동안 다른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분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책 가까이 오게 된다. 그러니 듣지 않는 아이를 의식해 힘들어하기보다는 책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책 읽는 느낌을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독후활동을 들 수 있다. 학교현장에서 흔히 하는 독후감 숙제, 독서골든 벨, 독서 마라톤 등은 선택이 아닌 강요를 포함하고 있어 책 읽은 느낌을 풍성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책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독후 활동은 책 읽기의 즐거움을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아이들을 억지로 책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갖고 평가까지 한다면 오히려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어디까지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

1. 그림책을 수업에 선택하는 까닭

그림책은 텍스트가 짧기 때문에 텍스트 전체를 쉽게 볼 수 있다. 짧은 글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긴 글보다 알다고 할 수 없다. 글 전체를 이해하고 있으면 학생들은 훨씬 질 높은 활동을 한다.

전체 텍스트를 이해하고 접근할 때와 일부분 제시된 글을 보고 접근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그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을 이해하기 쉽고, 그림을 보면서 다

양하게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

2. 효과적인 그림책활용 수업을 위한 전제조건들

- 1)어린이의 권리와 책 읽기 좋은 환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2)그림책을 읽어줄 때, 어린이들이 지루하면 듣지 않을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
- 3)책을 읽고 난 뒤에 하는 활동을 아이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때론 좋은 동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좋을 때가 많다.

VI. 나오면서

대부분의 어른들은 글을 깨우친 아이들이 그림책 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아이들의 독서단계를 정해놓고 글 밥이 많은 글 책으로 옮겨가기를 원한다.

아이들도 그런 마음일까? 글자를 알더라도 문맥을 파악하는 훈련은 더 필요하다.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글자와 함께 보이는 ‘그림’이다. 초등학생에게서 그림책을 빼앗지 말았으면 한다. 그림책을 읽는 4학년 학생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책 속에는 저자의 생각이 담겨 있다.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일은 그 생각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다. 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 한 명과 생각을 나누게 되고, 서른 명에게 읽어주면 서른 명과 생각을 나누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책 한권으로 아이들과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서 아이들의 책읽기 문화도 서서히 바뀌어 가리라 믿는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책 읽어주기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까이 만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책읽기, 읽어주기에 관심을 가진 선생님들과 함께 멀리 나아가기를 바란다.

그림책을 알아 가는 즐거움

이 원경 || 어린이도서연구회

I. 들어가며

그림책을 감상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 어른들은 읽어줄 아이를 많이 생각하고, 아이한테 어떻게 해줄까 생각한다. 한데 아이가 돼서, 아이처럼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렇겠지 저렇겠지 어른이 생각하는 것뿐. 어른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아이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고, 다른 것이 당연하다. 어린이책 작가는 보통의 어른보다 어린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른이 중간에 개입하는 것보다 아이는 그대로 책의 세계와 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책 읽는 것을 아무 도움도 없이 배우는 사람은 없다. 어른이 도와준다. 안 좋은 개입이 아니라 잘 연결해주기 위해서 어린이책 공부도 해야 한다.

그림책을 읽으면서 어른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아주 많지만, 두 가지로 꼽아본다. 하나는 **어린이처럼 보는 법**, 둘은 **그렇게 해서 그림책이 보여주는 어린이의 세계**를 배울 수 있다. 어린이처럼 보아야 그림책의 묘미를 흠뻑 느낄 수 있고, 감동하게 된다. 어떻게 보는 것인가, 즐기면서 본다. 책읽기가 공부라면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없을지 모른다. 노는 것, 즐기는 것이다. 그래야 그림책이 제대로 보인다.

우리는 그림책을 즐겨본 경험이 없다. 이미 어른이 되어 그림책을 보기 때문에 아이가 보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공부방법은 우수한 그림책을 같이 보는 것이다. 모인 사람이 서로 공부를 도와주어야 한다. 또 교실에 있는 아이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읽어주고 아이는 어떻게 느끼는지 직접 경험해 가면서 공부해야 한다.

다 같이 이야기하기, 모듬을 지어서 이야기하기, 글로 적기, 아이한테 읽어주기 등 여러 방법이 있다.

II. 시각적 문해력

어린이책 작가라고, 독자를 딱 한정해서 어떤 연령대, 남자, 여자, 어떤 아이들'만' 읽으라고 책을 쓸 리는 없다. 그러나 책을 쓰는 과정에서 작가가 마음으로 말을 거는 상대는 구체적이라야 한다. 어느 연령대 어린이라 할 때도 실제 알고 있는 아이 누구를 마음속에 독자로 떠올리고 쓰는 것이다. 만약 '무차별 대중'을 향해서 쓴다면 누구나의 구미에 맞추는, 대중적인 인기를 목표로 한 책이기 쉽다. 구체적인 누군가를 두고 쓴 책이 수많은 아이들

에게 깊은 충족감을 주는 일은 있어도, 관념의 어린이 집단을 두고 쓴 책이 그러기는 어렵다(불가능하다).

그림책 독자를 두고 흔히 ‘0세에서 100세까지’ 라 한다. 역시 작가의 마음 속 독자가 ‘아무나’ 라는 뜻은 아니다. 책 한 권을 만들 때 수많은 선택을 한다. (만약 선택하지 않고 손가는 대로-붓 가는 대로-한 것이라면 결과가 우수할 리 없다) 그 결과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읽을 수 있다. 어떤 일관성인가. **이야기가 제대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관성**이고, **이야기를 읽을 사람이 누군가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지켜지는 일관성**이다. 글도, 그림도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간다.

그림책(어린이책)은 책 자체에 담긴 메시지보다 독자가 읽어내는 메시지가 많다고 한다. 책이 독자가 책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두었는지, 독자가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져서 자기식으로 경험하게 확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Ⅲ. 그림책의 매력

어른들이 그림책을 고를 때 책장을 획획 넘겨보고 판단하는 수가 많다. 그림이 좋다, 별로다 하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 어른들은 그림을 보는 취향이 분명해서 그런 것 같다. 실제로 그림을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그림이 좋다 나쁘다 로 그림책을 판단하는 수가 많다. 또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주는 그림은 어때야 한다는 판단을 한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그린 그림을 정성이 있는 그림,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획획 날린 듯 그려진 그림은 좋지 않다는 이도 있고, 어두운 색조나 지나치게 강렬한 색 대비를 좋게 보지 않는 이도 있다. “어려서부터 그림책을 보면 그림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다”고 믿으니까 좋은 그림, 나쁜 그림을 가려서 보려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아이들은 반대다.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좋아하는 건 거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림을 좋아하게 되고, 아이들은 그림책을 볼 때 무슨 이야기일까, 기대하면서 책장을 넘긴다. 그러다 흥미를 끄는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책에서 떠난다. 아무리 훌륭한 그림(?)이 있어도 그림 자체를 즐기는 법은 잘 없다. 그림책은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는 이야기이다.

아이들한테 주는 그림은 활달하고 움직임이 큰 것이 좋다고 말한다. 『파랑이 노랑이』의 그림은 어떨까? 단조롭고 별 꾸밈이 없는 형태들, 규칙적인 배열, 단순하고 평면적인 공간처럼 보인다. 이제 이야기와 함께 그림을 보라. 그림이 어떻게 보이냐?

IV. 그림책을 읽는다.

스토리에 대한 관심은 모든 독자의 첫 번째 관심일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누가 이런 기대를 갖고 읽어 나간다. 이런 관심이 그림을 읽게 만든다. 그림은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정보를 한눈에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그림도 그것만 보여 주지는 않는다. 그림이 담는 정보는 굉장히 많아서 글로 옮기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그림책의 특별한 능력이 발휘된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니? 하고 물었더니 “그림을 자세히 보면 돼.” 말한다. 아이들은 책에 대해, 그림에 대해 두려움이 없고 잘 할지 못할지 걱정하지 않고 마음이 가는 만큼 그림을 읽는다. 취지가 분명한 좋은 그림들은 ‘읽을 수 있다’는 아이들의 믿음을 북돋아 준다. 『눈 오는 날』의 일곱 번째 화면을 보여 주었을 때 한 아이가 “애는 그냥 가고 있는데, 애네 둘이랑 애랑 팀 해가지고 애를 맞혔어.” 한다. 주인공은 드러나 있고 다른 인물들은 반만 드러나 있는 것, 주인공이 눈덩이를 맞은 것을 보고 그렇게 읽은 것이다. 하늘이 어더냐고 했더니 어둡고 답답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말한다. 그림의 상황과 분위기를 정확하게 읽은 거다. **그림을 읽는 것에 겁을 먹는 건 우리 어른들이다.** 그건 그림은 직관에 호소하는데 어른들은 직관보다 논리적인 설명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지 모르겠다. 어른의 말보다 아이의 말이 더욱 명쾌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느낀 그대로 말하기보다 뭔가 설명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설명하기 힘들면 그냥 어렵다고 말해 버린다. **먼저 느끼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어른들이 그림을 읽는 데 어려움을 겪는 까닭이 또 있다. 이야기에 얼마나 공감하느냐, 얼마나 깊이 빠지느냐에 따라 그림을 읽는 풍부함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은 일곱 살 아이가 『고릴라』를 보고 한 말을 받아 적은 것이다.

한나는 고릴라를 무척 좋아했어. 근데 한나는 고릴라 등에 타고 싶었어. 근데 한 번도 못 타 봤어. 그래가주구 동물원에 가서 타보고 싶었어. 근데 아빠가 너무 바빠서 다음에 라고 그랬어. 근데 아빠가 안 갔어. 간다고 그랬는데 안갔어. 근데 한나가 가고 싶었는데 고릴라 등에 타고 가고 싶었어. 근데 아빠는 아주 오오래 되면 간대. 아주 오오래 가 언제 된대요? 그렇게 말했어. 한나가 “아주 오오래는 니 똥구멍해. 아빠가 컴퓨터 하는데 방해했어. 한나가. 그래가주고 아빠가 한나를 혼냈어. 밖에 내쫓았어. 부들부들 떨어었는데 뒤에서 그림자가 보였어. 어.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진짜 고릴라가 있던 거야. 한나는 너무

(소리 질러 크게)신이 나서 왔싸비오오오 그랬어. 그래서 고릴라한테 말했어. “나 등에 태워줘.” 고릴라 “그래 좋아 태워줄게.” 그랬어. 그랬는데 고릴라가 동물원에 갔어. 고릴라가 수백 마리도 넘고 무한대였어. 그런데 갑자기 고릴라가 색깔이 바뀌었어. 파란색으로 됐는데 노랑색으로 바뀌어서 다시 주황색으로 바뀌었어. 다시 노랑색으로 바뀌었어. 근데 바깥에가 환해졌어. 다시 검은색으로 바뀌었어. 고릴라가 화나면 검정색으로 돼. 올 때는 파란색으로 돼, 노랑색은 웃을 때 주황색은 사랑할 때. 고릴라는 나중에 한나랑 뽀뽀했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목욕했는데 목욕하고 잤는데 고릴라 한번 쓰다듬어 주고 잤어. 끝.(오호선 기록)

이걸 보면 아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바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야기에 공감해서 저절로 온 마음을 다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거다. 사실 그림책을 보며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어린이가 되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달님 안녕』은 두 살 아이가 보는 단순하기 그지없는 그림책이지만 그 또래 아이가 일상으로 느끼는 뜻 깊은 체험과 발견을 담고 있다. 말 못하는 아이가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과 우주를 만나는가를 경이롭게 느낀다. 그럴 때 어린 아이를 보는 눈길이 그전과 같을 수 없다. 어린이에 대한 편견과 타성을 돌아보고 아이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 일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1. 작가탐구

1) 앤서니 브라운

1946년 9월 11일~. 영국 셰필드에서 태어난 동화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적 형과 함께 종종 그림 그리기를 하였던 그는 순수 미술이 돈을 벌기에는 부적합 하는 걸 알고 1963년 리즈 예술학교에서 그래픽을 전공하였다. 하지만, 미술 대학의 수업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초. 중 등 때의 미술 수업처럼 그리라고 하는 대로 그리는 것은 그의 적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마도 그의 독특한 시각과 풍자, 유머 등은 이 때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하고 짐작해본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의 작품에 아버지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 아버지에게 대한 그리움과 존경 때문이라고 회고하기도 한다.

2) 작품의 특징

앤서니 브라운은 고릴라를 즐겨 그리며 가족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바쁜 현대 생활에서 소외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옛이야기를 도입하며 숨은 그림 찾기, 변형 등의 특별한 기법을 보여준다.

①고릴라와 가족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고릴라를 많이 그리는 이유로 첫째는 고릴라가 보기에 근사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람과 비슷하며, 셋째는 고릴라를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릴라가 자신이 책에서 표현하는 세상의 초현실적인 면과 닮아있기 때문으로 평범한 것 같지만 인간의 다양한 면을 표현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가족 간의 이야기도 자주 다루는데, 갈등을 겪는 가족들이 결국에는 화해로 결말을 맺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돼지책』, 『나와 너』에는 동화책에서는 보기 힘든 가족 간의 단절 및 불평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사실적인 그림은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면서 곳곳에서 보여주는 유머는 결코 주제를 무겁지 않게 전달한다.

②옛이야기 차용과 명화 패러디이다.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 속에서 많은 옛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주인공이 들어간 토끼 굴은 <나니아 연대기>에서 ‘옷장’으로, <비밀의 화원>에서 ‘문’으로 드러난다. 이같이 ‘이상한 나라’의 출입구로는 <터널>에서는 ‘터널’로 들어가는 것으로 연결된다. 주인공 로즈가 펼쳐서 보는 책의 화면을 통해 드러나듯이 독일의 메르헨 ‘오누이’, ‘헨젤과 그레텔’, ‘빨간 모자’, ‘잭과 콩나무’, 심지어는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 이야기까지 옛이야기를 차용했음을 알 수 있다.

<미술관에 간 율리>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비롯하여 보티첼리, 마네, 미켈란젤로, 쇠라, 밀레, 고야, 고흐, 프리다 칼로, 앙리 루소 등의 많은 명화들을 앤서니 브라운 특유의 유머와 재치로 패러디하여 자신의 스타일로 새롭게 그려 명화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그림 속에 숨은 그림 찾기 등의 장치도 마련하였다. 이 책과 더불어 <꿈꾸는 율리>에서 그림 속에 숨겨진 율리이야기를 찾아내는 아이들의 눈빛은 사뭇 진지하다.

이야기와 더불어 명화를 새롭게 패러디해서 그려 넣은 것은 앤서니 브라운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되었다.

③숨은 그림, 다른 그림 찾기이다.

그림책을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앤서니 브라운은 그림책안에 많은 것들을 숨겨두고 있다. 이야기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재미있는 장치나 상징으로 동물이나 식물을 그려 넣기도 한다.

<고릴라>에스는 앞표지부터 곳곳에 고릴라의 형체가 숨어있다. 아빠가 보고 있는 신문, 킹콩 브로마이드, 야경 속의 그림자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에 아빠의 뒷주머니에 꽂혀 있는 바나나는 한나가 현실에서 아빠와 함께 동물원에 가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한나와 아빠의 모습과 한나와 고릴라의 모습을 여러 장면에서 같은 구도로 그려서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할 수 있고, 이 점을 통해 이야기의 이해를 돕고 있다.

<행복한 미술관>에서는 작가가 런던의 테이트미술관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쳤던 경험을 토대로 미술작품의 감상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서로 다른 그림 찾기를 직접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그림책에서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림 놀이다.

④마지막 특징으로는 변형이다.

자가는 ‘모양 상상 놀이’를 그림책 전반에서 보여주는데 초현실주의자의 영향, 특히 르네 마그리트의 변형기법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모양 상상 놀이’는 단순하지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도형 혹은 모양을 그려놓고, 그 위에 새로운 선이나 모양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형태를 찾아가는 놀이다.

<행복한 미술관>의 결말을 ‘모양 상상 놀이’라는 그림 놀이로 맺는데, 이 놀이의 핵심은 ‘변형’이다. 이러한 변형, 즉 뭔가가 달라지는 그림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달라질 거야>이다. 그림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단서를 제공하는데 조셉의 상상으로 변형되는 다양한 물체는 새로 태어나는 아기로 인해 가족의 생활에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것에 대한 아의 근심과 소외의 표현이다. 침실인 고흐의 방에서는 아웃사이드인 고흐를 그림으로 소외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책의 제목처럼 사물이 지속적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그림책 전체에 걸쳐서 표현하고 있다. 거실에 놓인 텔레비전 화면 속에 등장한 어미 새는 다음 페이지에 알들을 남겨둔다. 그런데 참새알 사이에 놓인 빠꾸기 알은 두려움의 표현이며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서 아기 빠꾸기에게 먹이를 주는 어미 새의 모습은 위협을 더욱 가중시킨다. 조셉이 밖으로 나와서 찬 축구공이 알이 되고, 알 속에서 황새가 깨어 나오는 설정은 생명, 즉 동생의 탄생을 암시하고 있다.

그 밖에 주전가 줄무늬 고양이로, 세면대에 물 빠지는 구멍이 입으로 변하고 청소기가 코끼리 코가 되며 자전거 바퀴는 사과가 되고 소파는 점차 고릴라로 변한다. 마치 판타지 영화를 책으로 옮겨놓은 듯 사실적이면서 초현실적인 그림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의 그림책에서 눈을 떼기 어렵고, 시간이 흘러 다시 봐도 숨어있는 그림과 새로운 그림을 찾는데 열중하게 한다.

앤서니 브라운은 그림을 즐기며 그림으로 하는 놀이를 즐기고, 그림책 만드는 일을 즐기며 나아가 자신의 작품 세계를 끊임없이 변형해 나가는 것을 즐기는 열정적인 작가이다. 40여 점의 작품을 꼼꼼히 살피며 그의 그림 속 장면변화와 이야기를 찾아보자 .

V. 그림책은 유치해선 안 된다

싸우면서 큰다는 말은 아이들끼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와 싸우는 것도 들어가는 거다. 싸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란다는 건 그렇게 엄마 아빠와 형과 누나와 따로 떨어져 나와서 혼자가 된다는 것이니까. 자기 혼자서밖에는 풀 수 없는 문제와 씨름하는 거니까. 여기서 아이와 완전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이다.

아이가 자라는 힘은 아이 안에 있다. 아이 안에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다. 혼란스러울 때는 그 안에서 어떤 힘을 써야 하는지 모르고 있을 때다. 아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힘 가운데에서 아이가 자라도록 이끌어 주는 힘을 더 북돋아 주는 것이 책이다. 자기 안에 있는 더 큰 정신적인 힘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책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귀여운 인물들이 나오는 밝은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도 복잡한 감정이 있고, 분노, 슬픔, 좌절감 같은 여러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다. 그리고 아이들도 우리처럼 자기 정신이 고양될 때 기쁨을 느낀다. 유치한 것은 싫어한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이 아이들 눈에는 유치해 보인다. 그림책은 아이들이 진지하고 골똘하게 자기와 씨름하는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그런 아이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이 짧아야 하고, 그림이 단순하고 쉬워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얽매이지 말자. 아이가 관심을 갖는 이야기라면 아이는 자기가 가진 걸 다 동원해서 이해하게 된다. 미리 선을 그으면 아이가 지닌 가능성을 제한하게 된다. 읽어 주고 바로 대답이 착착 나와야 아이한테 맞는 것, 제대로 읽은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리고 목록을 참고는 할지언정 너무 얽매이지 말자. 모든 아이한테, 언제나 좋은 책은 없다. 몇 학년에는 이 정도는 읽어야 한다는데,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보다는 다

양하게 읽어주면서 이 아이는 무얼 좋아하는구나. 왜 그 책에 끌렸을까 생각해 보는 게 훨씬 좋다. 우리가 책을 읽어 주지만 정말 책을 읽는 사람은 아이고, 책을 선택하는 사람도 아이 자신이니깐. 우리는 책을 보는 한편으로 아이를 보고, 책에 대해 알게 될 뿐더러 아이에 대해서도 새로운 눈을 뜨게 된다. 그래서 어린이책을 읽는 게 즐겁고 보람이다.

VI. 모둠 활동 - ‘그림책 주인공이 들려주는 마음의 목소리’

1. 읽는 책

피터의 의자 / 에즈라 잭 키츠/ 시공주니어

파랑이와 노랑이 / 레오 리오니/ 물구나무

고릴라 /앤서니 브라운/ 비룡소

푸른 개 /나자/ 파랑새

2. 다 같이 이야기 나누기

1) 피터의 의자를 읽어준다.

◆ 특색 있다고 느낀 점이 있나요?

- 집 나간 게 처음이 아닐 것 같다, 코앞에 나갔다는 거, 엄마가 일부러 속아주는 건지 모르나 그렇게 들어온 거.

◆ 피터의 물건을 다 동생에게 주고~에 대해 질문. 피터 거를 동생에게 주었어요? 뭘 주었어요?

- 구체적인 사물을 떠올림.

◆ 가출이란 낱말에 대해. 피터는 도망이란 표현을 썼다고 환기하고, 어른은 십중팔구 가출이란 말을 떠올리고 가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 앞에 있는 피터를 보고 더욱 웃게 된다고 말하자 크게 공감.

2) 모둠 이야기하기

① 좋아하는 책이 같은 사람끼리 모인다. (3명 이상)(피터의 의자, 파랑이와 노랑이, 고릴라를 각각 탁자에 놓는다. 참가자가 책을 둘러보며 자세히 읽어보고 싶은 책이 있는 탁자에 가서 앉는다.)

- ② 한 사람이 읽어주고 나머지는 듣는다.
- ③ 전반적인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 ④ 한 장면씩 펼쳐보며, 그 장면에서 인물의 마음이 어떤지 말한다. 인물의 속마음이라 생각되는 것을 인물의 혼잣말로 표현한다.(진행자가 1장면을 펼쳐 같이 해본다.)
- ⑤ 말한 것을 활동지에 적는다.

VII. 나가면서

책을 소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주제별 나눔이다. 그런데 이때 책을 소개하는 사람이 ‘이 책은 이런 이야기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님에도, 읽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책의 주제를 들은 대로만 받아들이게 된다. 좀처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으뜸 헤엄이》만 해도 ‘여럿이 힘을 합치면 강한 존재도 물리칠 수 있다’는 주제로 흔히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도 자꾸만 그 주제에 가까이 다가가려 애쓴다. 바로 내가 그랬었다. 그러다 보니 책에 담겨 있는 더 많은 이야기를 읽어 내지 못한다.

《으뜸 헤엄이》를 읽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물고기를 만날 수 있다. 그런 희망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 생겨나는 것이다. 돌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지쳐 쓰러져도 자아에 대한 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상황을 극복하는 힘과 지혜를 찾아낸다. 최악의 상황에 몰린 으뜸 헤엄이를 보며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지혜와 용기로 힘센 자를 물리친다는 그 이야기뿐일까? 아무리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음도 읽어 내게 되지 않을까?

맛있는 음식은 한 가지 때문에 맛이 좋아질 수 없다. 문학 작품도 이와 같아서, 담고 있는 의미가 많고 또 읽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작품에서 너무도 간단하게 하나의 의미만 찾아내고 그것이 마치 그 책에서 맛볼 수 있는 전부인 양 생각해 왔다. 하나의 작품에 여러 의미를 담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아이들의 다양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다. 그러면서 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아이들과 함께 깨달을 수 있다. 좋은 작품을 좀 더 맛있게 읽기, 그건 음식을 오래 씹으며 여러 가지 맛을 느끼는 것과 같은 일이다.

독서는 삼독이다. 텍스트를 읽고 저자도 읽고 최종적으로 독자 자신을 읽는 삼독의 즐거움을 우리 아이들이 느꼈으면 한다.

첨부자료1

엄마 마중

이태준

추워서 코가 새빨간 아가가 아장아장 전차 정류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킁 하고 안전지대에 올라섰습니다.
이내 전차가 왔습니다. 아가는 가웃하고 차장더러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안 오?”
“너희 엄마를 내가 아니?”
하고 차장은 ‘땡땡’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또 전차가 왔습니다. 아가는 또 가웃하고 차장더러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안 오?”
“너희 엄마를 내가 아니?”
하고 이 차장도 ‘땡땡’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전차가 또 왔습니다. 아가는 또 가웃하고 차장더러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안 오?”
“오!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구나.”
하고 이번 차장은 내려와서,
“다칠라. 너희 엄마 오시도록 한 군데만 가만히 섰거라,
응?”
하고 갔습니다.
아가는 바람이 불어도 꺾끗 안 하고, 전차가 와도 다시는
묻지도 않고, 코만 새빨개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조선아동문학집>. 1938년

첨부자료2

시를 읽어요

()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
정연철

해가 떴습니다
엄마 입에서 알아서 해가 떴습니다

엄마가 친구들과 약속 있어
급히 나가는 날
알아서 해는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해

엄마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날
알아서 해는
세상에서 제일 알쏭달쏭한 해

학교에서 말썽 부린 날
학원에서 시험 망친 날
알아서 해는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해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해



()

정연철

하루 종일
골목골목 돌아 다니며
손수레에 짚지 담은 할머니
내가 감기 몸살로 결석하자
일도 안 나가고
물수건으로 얼굴 닦아 주고
죽 먹여 주고
약 먹여 주고
이불까지 덮어주고는
결에서 걸레로
조용히 방을 닦는다
할머니 나 먹여 살리려면
일 나가야 하는데
딱 하루만 더
아프고 싶다.

()

진현정

엄마가 얘기했지?
문제는 천천히 읽고
다 풀고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한 문제 안 틀리는 거
그게 실력이니까
절대 실수하지 말라고
그랬니 안 그랬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니까
이 모양이지
꼭 한 개씩 틀리잖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었니?

근데 너 왜 울어?

()
정연철

엄마, 믿어 줘
나 이번 시험 진짜 자신 있었거든
그런데 시험 중에
바깥에 유치원 꼬마들 재잘재잘 지나가고
학성기로 동네 아줌마들 다 부르는
생선 장수 아저씨 트럭 지나가고
나중엔 붓도 안 났는데 복도에서
화재 경보음까지 울리지 뭐야
도대체 집중이 돼야 말이지
결정적으로 어제 너무 무리했는지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
공부한 거는 생각 안 나는데
아빠가 성적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는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대충 찍고 잤어
나 잘했지?

걱정 마
다음에 잘 치면 되지 뭐

()
정유경

새는 길을
외워두지 않아요

새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하늘을 날고

그래서 새가 가는 길은
늘 새 길

2016-2019년 출간 그림책목록

그림책	동지 아파트 이사 대작전	폴라 셰어	스탠 맥	길상효	씨드북
그림책	딱 하나 고를게	로렌차일드	로렌 차일드	김난령	국민서관
그림책	백 번째 양 두두	박준희	한담희		책고래
그림책	선생님, 기억하세요?	데보라 홉킨슨	낸시 카펜터	길상효	씨드북
그림책	세상이 물고기로 변했어요!	기드온 스테르	폴리 베르나테네	김선희	푸른숲주니어
그림책	싫은 날	성영란	성영란		반달
그림책	알레나의 채소밭	소피 비시에르	소피 비시에르	김미정	단추
그림책	알사탕	백희나	백희나		책읽는곰
그림책	앵커 씨의 행복 이야기	남궁정희	남궁정희		노란돼지
그림책	임금님의 이사	보탄야스요시	보탄 야스요시	김영순	문학과지성사
그림책	좋아해	노석미	노석미		사계절
그림책	하지만 하지만 할머니	사노 요코	사노 요코	엄혜숙	상상스쿨
그림책	나를 세어 봐!	케이티 코튼	스티븐 월턴	조은수	한울림어린이
그림책	달토끼 거북이 오징어	조수진	조수진		반달
그림책	같은 달 아래	지미 리아오	지미 리아오	정진	레드스톤
그림책	나의 여름	신혜원	신혜원		보림
그림책	눈세계	앙투안 기요페	앙투안 기요페	박대진	보림
그림책	단어수집가	피터 레이놀즈	피터 레이놀즈	김경연	문학동네
그림책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	매튜 코델	매튜 코델		비룡소
그림책	소쉬르, 몽블랑에 오르다	피에르 장지위스	피에르 장지위스	나선희	책빛
그림책	수영장에 간 아빠	유진	유진		한림출판사
그림책	어느 날 아침	로버트 맥클로스키	로버트 맥클로스키	장미란	논장
그림책	엄마와 나	레나타 갈린도	레나타 갈린도	김보람	불의여우
그림책	여섯 번째 바이올린	치에리 우에가키	친령	김희정	청어람아이
그림책	웅덩이를 건너는 가장 멋진 방법	수산나 이세른	마리아 히론	성초림	트리앤북
그림책	추억을 담은 지도	프란 누뇨	주잔나 첼레이	김지애	씨드북
그림책	카틴카의 조금 특별한 꼬리	주디스 커	주디스 커	공경희	웅진주니어
그림책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	엘리샤 쿠퍼	엘리샤 쿠퍼	엄혜숙	시공주니어
그림책	구덩이	다니카와 슌타로	와다 마코토	김숙	북뱅크
그림책	물리와 메이	대니 파커	프레야 블랙우드	공경희	웅진주니어
그림책	빠뛰기	권정생	김환영		창비
그림책	수박이 먹고 싶으면	김장성	유리		이야기꽃
그림책	우리 동네 정원 만들기	다이언 다살보-라이언	다이언 다살보-라이언	김선희	나무상자
그림책	한밤의 왕국	막스 뒤코스	막스 뒤코스	류재화	국민서관
그림책	1분이면...	안소민	안소민		비룡소

그림책	감기 걸린 물고기	박정섭	박정섭		사계절
그림책	니노의 강아지	에드바르트 판 드 펜텔	안톤 판 헤르트브뤼헌	최진영	지양어린이
그림책	달을 줄 걸 그랬어	존 무스	존 무스	천미나	담푸스
그림책	모자를 보았어	존 클라센	존 클라센	서남희	시공주니어
그림책	산딸기 크림봉봉	에밀리 젠킨스	소피 블래콜	길상효	씨드북
그림책	아무도 지나가지 마!	이자벨 미뇨스 마르틴스	베르나르두 카르발류	민찬기	그림책공작소
그림책	안녕, 가을	케나드 박	케나드 박	서남희	국민서관
그림책	위니를 찾아서	린지 매틱	소피 블래콜	정회성	미디어창비
그림책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	권정민	권정민		보림
그림책	파란 집에 여름이 왔어요	케이트 뱅크스	게오르크 할렌슬레벤	이상희	보림
그림책	헬리콥터 타고 세계 여행	클레망틴 보베	안느 루케트	김유진	국민서관
그림책	희망의 목장	모리 에토	요시다 히사노리	고향옥	해와나무
그림책	7년 동안의 잠	박완서	김세현		어린이작가정신
그림책	감자 좀 달라고요!	모린 퍼거스	듀산 페트릭	김선희	책과콩나무
그림책	꼬마 예술가 라피	토미 웅거러	토미 웅거러	이현정	비룡소
그림책	대추 한 알	장석주 시	유리		이야기꽃
그림책	바보 야쿠프	울프 스타르크	사라 룬드베리	이유진	한겨레아이들
그림책	안녕, 아이반	캐서린 애플게이트	G. 브라이언 카라스	김윤희	다른
그림책	조개맨들	신혜은	조은영		시공주니어
그림책	할아버지는바람속에 있단다	룩산느 마리 갈리에즈	에릭 뤼바레	박정연	씨드북
그림책	호랑나비와 달님	장영복	이혜리		보림
그림책	3일 더 사는 선물	레미 쿠르종	레미 쿠르종	이정주	씨드북
그림책	강냉이	권정생 시	김환영		사계절
그림책	까치가 물고 간 할머니의 기억	상드라 푸아로 셰리프	상드라 푸아로 셰리프	문지영	한겨레아이들
그림책	텅 빈 냉장고	가에탕 도레뮌스	가에탕 도레뮌스	박상은	한솔수북
그림책	구조 바람	로이 미키	줄리 플렛	길상효	씨드북
그림책	꽃을 선물할게	강경수	강경수		창비
그림책	나는 보이지 않아요	안나 플라트	리 쇠데르베리	권지현	씨드북
그림책	나의 초록색 가족	토마 라바세리	토마 라바세리	김지애	씨드북
그림책	내 친구 마틴은 말이 좀 서툴러요	알레인 아지레	마이테 그루차가	김지애	라임
그림책	바닷가 탄광 마을	조앤 슈워츠	시드니 스미스	김영선	국민서관
그림책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	허은미	김진화		여유당
그림책	사랑하는 고양이가 죽은 날	그뤼 모우르순	그뤼 모우르순	한주연	찰리북
그림책	숨바꼭질	김정선	김정선		사계절
그림책	씨앗 100개가 어디로 갔을까	이자벨 미뇨스 마르틴스	야라 코누	홍연미	토토북
그림책	과양!	조원희	조원희		시공주니어
그림책	파랑 오리	릴리아	릴리아		킨더랜드

그림책 목록

이야기	간식을 먹으러 온 호랑이	주디스 커	주디스 커	최정선	보림
이야기	감기 걸린 날	김동수	김동수		보림
이야기	강아지똥	권정생	정승각		길벗어린이
이야기	개구리네 한술밥	백석	강우근		길벗어린이
이야기	개구쟁이 그레고	이억배	이억배		사계절
이야기	개구쟁이 해리- 목욕은 정말 싫어요	G. 자이언	M. 그래엄	임정재	사파리
이야기	검피 아저씨의 뱃놀이	존 버닝햄	존 버닝햄	이주령	시공주니어
이야기	고 녀석 맛있겠다	미야니시 타츠야	미야니시 타츠야	백승인	달리
이야기	고양이	현덕	이형진		길벗어린이
이야기	고양이는 나만 따라 해	권윤덕	권윤덕		창비
이야기	고함쟁이 엄마	유타 바우어	유타 바우어	이현정	비룡소
이야기	곰 사냥을 떠나자	마이클 로젠	헬린 옥슨버리	공경희	시공주니어
이야기	과자	현덕	이형진		소년한길
이야기	괴물들이 사는 나라	모리스 샌닥	모리스 샌닥	강무홍	시공주니어
이야기	구리와 구라의 빵 만들기	나카가와 리에코	오무라 유리코	이영준	한림
이야기	그건 내 조끼야	나카에 요시오	우에노 노리코	박상희	비룡소
이야기	그네 타는 암소 무	토마스 비스란데르	스벤 노르드퀴비스트	조윤정	사계절
이야기	기러기	몰리뱅	몰리 뱅	이명희	마루별
이야기	길 아저씨 손 아저씨	권정생	김용철		국민서관
이야기	꼬마 돼지	오드리 우드, 돈 우드	돈 우드	최정선	보림
이야기	꼬마 발레리나 타냐	페트리샤 리 고흐	이치카와 사토미	장지연	현암사
이야기	나랑 같이 놀자	마리 홀 에츠	마리 홀 에츠	양은영	시공주니어
이야기	나무는 좋다	재니스 메이 우드리	마르크 시몽	강무홍	시공주니어
이야기	난 병이 난 게 아니야	카도노 에이코	다루이시 마코	엄기원	한림
이야기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로렌 차일드	로렌 차일드	조은수	국민서관
이야기	내 보물 1호 티노	김영수	김영수		비룡소
이야기	내 뼈다귀야!	니콜라스 모르드비노프	월과 니콜라스	박향주	시공주니어
이야기	내 사랑 뽀뽀	케빈 헹크스	케빈 헹크스	이경혜	비룡소
이야기	내가 언제 동생 낳아 달랬어	마사 알렉산더	마사알렉산더	서남희	보림
이야기	넉 점 반	윤석중	이영경		창비
이야기	노란 우산	신동일 작곡	류재수		보림
이야기	노란 풍선	사카이 고마코	사카이 고마코	고향옥	웅진주니어
이야기	노래하는 볼 돼지	김영진	김영진		길벗어린이
이야기	눈 오는 날	에즈라 잭 키츠	에즈라 잭 키츠	김소희	비룡소
이야기	눈사람 아저씨		레이먼드 브릭스		마루별
이야기	다음엔 너야	에른스트 얀들	노르만 융에	박상순	비룡소
이야기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사토 와키코	사토 와키코	이영준	한림
이야기	도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호백	이호백		재미마주
이야기	도서관에 개구리를 데려갔어요	에릭 킴멜	블랜치 심스	신형건	보물창고
이야기	떠돌이 개	마르크 시몽	마르크 시몽	백영미	작은책방
이야기	똥벼락	김회경	조혜란		사계절
이야기	뛰어라 메뚜기	다시마 세이조	다시마 세이조	정근	보림
이야기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하이타니 겐지로	초 신타	햇살과나무꾼	양철북

이야기	마녀 위니	벨러리 토머스	코키 폴	김중철	비룡소
이야기	마법에 걸린 병	고경숙	고경숙		재미마주
이야기	만희네 집	권윤덕	권윤덕		길벗어린이
이야기	말썰꾸러기 또또	김성은	한병호		길벗어린이
이야기	모치모치 나무	사이토 류스케	다키다이라 지로	김영애	주니어RHK
이야기	목욕은 즐거워	교코 마스오카	하야시 아키코	김현주	한림
이야기	바람이 불었어	팻 허친즈	팻 허친즈	박현철	시공주니어
이야기	바바빠빠	아네트 티종, 탈루스 테일러	아네트 티종, 탈루스 테일러	이용분	시공주니어
이야기	바빠요 바빠	윤구병	이태수		보림
이야기	브루노를 위한 책	니콜라우스 하이델바흐	니콜라우스 하이델바흐	김경연	폴빛
이야기	비가 오는 날에...	이혜리	이혜리		보림
이야기	비오는 날	유리 솔레비츠	유리 솔레비츠	강무홍	시공주니어
이야기	비오는 날의 소풍	가브리엘르뱅상	가브리엘르 뱅상	김미선	시공주니어
이야기	빨간 끈으로 머리를 묶은 사자	남주현	남주현		길벗어린이
이야기	산타 할아버지	레이먼드 브릭스	레이먼드 브릭스	박상희	비룡소
이야기	세 친구	헬메 하이네	헬메 하이네	황윤선	시공주니어
이야기	설리야, 물가에 가지 마!	존버닝햄	존 버닝햄	이상희	비룡소
이야기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채인선	이억배		재미마주
이야기	순이와 어린 동생	쓰쓰이 요리코	하야시 아키코	양선하	한림
이야기	숲 속에서	마리 홀 에츠	마리 홀 에츠	박철주	시공주니어
이야기	쉴! 책 속 늑대를 조심해!	로렌 차일드	로렌 차일드	고정아	국민서관
이야기	씩씩한 마들린느	루드비히 베멀먼즈	루드비히 베멀먼즈	이선아	시공주니어
이야기	아기너구리네 봄맞이	권정생	송진현		길벗어린이
이야기	아기오리 열두 마리는 너무 많아	채인선	유승하		길벗어린이
이야기	아름다운 책	클로드 부종	클로드 부종	최윤정	비룡소
이야기	아빠랑 함께 피자 놀이를	윌리엄 스타이그	윌리엄 스타이그	박찬순	보림
이야기	아저씨 우산	사노 요코	사노 요코	박상희	비룡소
이야기	아주 아주 큰 고구마	아까바 스에끼찌	아까바 스에끼찌	양미화	창비
이야기	악어도 깜짝, 치과 의사도 깜짝!	고미타로	고미 타로	이종화	비룡소
이야기	악어오리 구지구지	천즈위엔	천즈위엔	박지민	예림당
이야기	알과 암탉		엘라 마리, 엔조 마리		시공주니어
이야기	엘피가 일등이에요	셜리 휴즈	셜리 휴즈	조숙은	보림
이야기	앵거스와 두 마리 오리	마저리 플랙	마저리 플랙	이진영	시공주니어
이야기	앵무새 열 마리	퀸틴 블레이크	퀸틴 블레이크	장혜린	시공주니어
이야기	야, 비 온다	이상교	이성표		보림
이야기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존 버닝햄	존 버닝햄	박상희	비룡소
이야기	양배추 소년	초 신타	초 신타	고향옥	비룡소
이야기	예방주사 무섭지 않아!	후카미 하루오	후카미 하루오	이영준	한림
이야기	오늘은 무슨 날?	정은정	홍성지		비룡소
이야기	용돈 주세요	고대영	김영진		길벗어린이
이야기	우리선생님이최고야!	케빈 헹크스	케빈 헹크스	이경혜	비룡소
이야기	우리 집에는 괴물이 우글우글	홍인순	이혜리		보림
이야기	우리는 별거숭이 화가	문승연	이수지		길벗어린이
이야기	움직이는 ㄱㄴㄷ	이수지	이수지		길벗어린이
이야기	웅고와 분홍돌고래	김한민	김한민		우리교육

이야기	으뜸 해엄이	레오 리오니	레오 리오니	이명희	마루별
이야기	은지와 폭신이	하야시 아키코	하야시 아키코		한림
이야기	이모의 결혼식	선현경	선현경		비룡소
이야기	이슬이의 첫 심부름	쓰쓰이 요리코	하야시 아키코	이영준	한림
이야기	잃어버린 줄 알았어	고미타로	고미 타로	김난주	베틀북
이야기	제랄다와 거인	토미 웅거러	토미 웅거러	김경연	비룡소
이야기	준치 가시	백석	김세현		창비
이야기	즐거운 비	김향수	서세옥		한솔수북
이야기	지하철 바다	황은아	황은아		마루별
이야기	지하철은 달려온다	신동준	신동준		초방책방
이야기	지하철을 타고서	고대영	김영진		길벗어린이
이야기	집 나가자 꿀꿀꿀	야규 마치코	야규 마치코	고향옥	웅진주니어
이야기	짚어 봐 조지야	줄스 파이퍼	줄스 파이퍼	조숙은	보림
이야기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	윌리엄 스타이그	윌리엄 스타이그	조은수	비룡소
이야기	친구랑 싸웠어!	시바타 아이코	이토 히데오	이선아	시공주니어
이야기	침만 꿀꺽꿀꺽 삼키다 소시지가 되어버린 악어 이야기	로알드 달	퀸틴 블레이크	김수연	주니어김영사
이야기	코를 "쿵쿵"	루스 크라우스	마크 사이먼트	고진하	비룡소
이야기	크릭터	토미 웅거러	토미 웅거러	장미란	시공주니어
이야기	트레버가벽장을치웠어요	롭 루이스	롭 루이스	정해왕	비룡소
이야기	티치	팻 허친즈	팻 허친즈	박현철	시공주니어
이야기	파란 의자	클로드 부종	클로드 부종	최윤정	비룡소
이야기	파랑이와 노랑이	레오리오니	레오 리오니	이경혜	파랑새
이야기	푸른 개	나자	나자	최윤정	파랑새
이야기	피터의 의자	에즈라 잭 키츠	에즈라 잭 키츠	이진영	시공주니어
이야기	피튜니아, 공부를 시작하다	로저 뒤봐쟁	로저 뒤봐쟁	서애경	시공주니어
이야기	해럴드와 자주색 크레파스	크로켓존슨	크로켓 존슨	서애경	비룡소
이야기	행복한 사자	루이제 파쇼	로저뒤봐쟁	지혜연	시공주니어
이야기	헤어드레서 민지	정은희	정은희		상
이야기	헨리에타의 첫 겨울	롭루이스	롭 루이스	정해왕	비룡소
이야기	호기심 많은 고양이	버다닌 쿡	레미 찰립	햇살과나무꾼	비룡소
이야기	호기심 많은 꼬마 물고기	엘사 베스코브	엘사 베스코브	김상열	시공주니어
이야기	14 마리의 아침밥	이와무라 카즈오	이와무라 카즈오	이영준	한림
이야기	거인 사냥꾼을 조심하세요!	콜린맥노튼	콜린 맥노튼	전효선	시공주니어
이야기	검은 새	이수지	이수지		길벗어린이
이야기	고릴라	앤터니 브라운	앤터니 브라운	장은수	비룡소
이야기	고맙습니다, 선생님	패트리샤 폴라코	패트리샤 폴라코	서애경	아이세움
이야기	고양이 폭풍	안토니아 바버	니콜라배일리	김기택	비룡소
이야기	고향으로	김은하	김재홍		길벗어린이
이야기	곰 인형 오토	토미웅거러	토미웅거러	이현정	비룡소
이야기	곰이와 오펜돌이 아저씨	권정생	이담		보리
이야기	구름 나라	존 버닝햄	존 버닝햄	고승희	비룡소
이야기	까마귀 소년	야시마 타로	야시마 타로	윤구병	비룡소
이야기	까마귀의 소원	하이지 홀더	하이지 홀더	이명희	마루별
이야기	꼬마 돼지의 불고기 대작전 29	아서 가이서트	아서 가이서트		보림

이야기	꼬마 원시인 크로미농	미셸 게	미셸 게	이경혜	웅진주니어
이야기	꿈꾸는 소년의 짧고도 긴 여행	기 발루	기 발루	이명희	마루별
이야기	나야?고양이야?	기타무라 사토시	기타무라 사토시	조소정	베틀북
이야기	난 커다란 털북숭이 곰이다	야노쉬	야노쉬	조경수	시공주니어
이야기	난 형이니까	후쿠다 이와오	후쿠다 이와오	김난주	아이세움
이야기	난쟁이 코	빌헬름 하우프	리즈베스 츠베르거	홍성혜	마루별
이야기	내 동생 김점박	김정선	김정선		예림당
이야기	내작은친구, 머핀!	울프 닐슨	안나 클라라 티드홀름	선우미정	느림보
이야기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존 세스카	레인 스미스	황의방	보림
이야기	도서관	사라 스튜어트	데이비드 스몰	지혜연	시공주니어
이야기	도서관에 간 사자	미셸 누드슨	케빈 호크스	홍연미	웅진주니어
이야기	돌려 줘, 내 모자	우메다 슌사쿠	우메다 슌사쿠	김난주	시공주니어
이야기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허은미	웅진주니어
이야기	따로 따로 행복하게	배빗 쿨	배빗 쿨	고정아	보림
이야기	리디아의 정원	사라 스튜어트	데이비드 스몰	이복희	시공주니어
이야기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박연철	박연철		시공주니어
이야기	모기와 황소	현동염	이억배		길벗어린이
이야기	미술관에 간 율리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장미란	웅진주니어
이야기	미스 럽피우스	바버러 쿠니	바버러 쿠니	우미경	시공주니어
이야기	버스를 타고	아라이 료지	아라이 료지	김난주	보림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무화과	크리스 반 알스버그	크리스 반 알스버그	이지유	미래아이
이야기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나의마을	고바야시 유타카	고바야시 유타카	길지연	미래아이
이야기	소피의 달빛 담요	에일린 스피넬리	제인 다이어	김홍숙	파란자전거
이야기	술이의 추석 이야기	이억배	이억배		길벗어린이
이야기	숨어 있는 집	마틴 워델	안젤라 바렛	장미란	마루별



memo...





memo...





memo...

